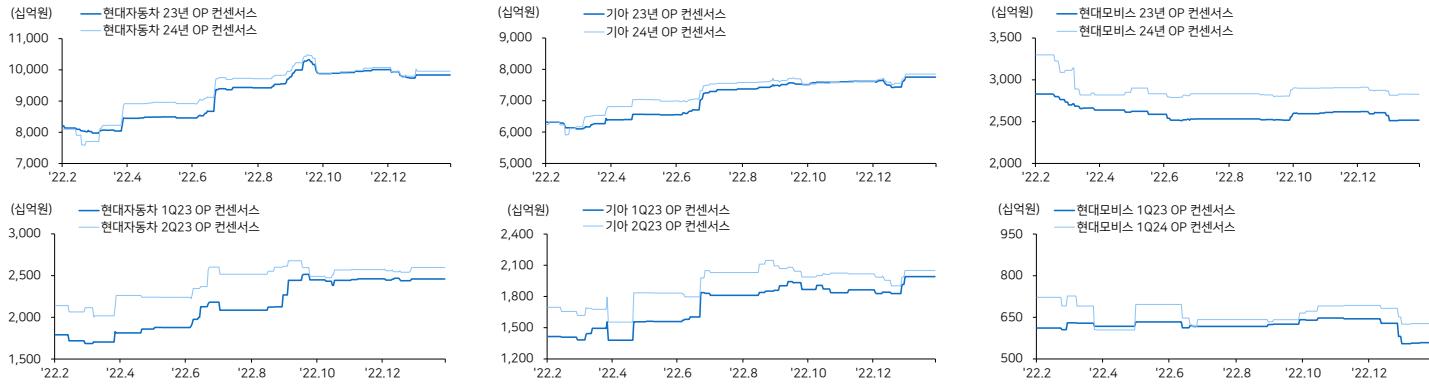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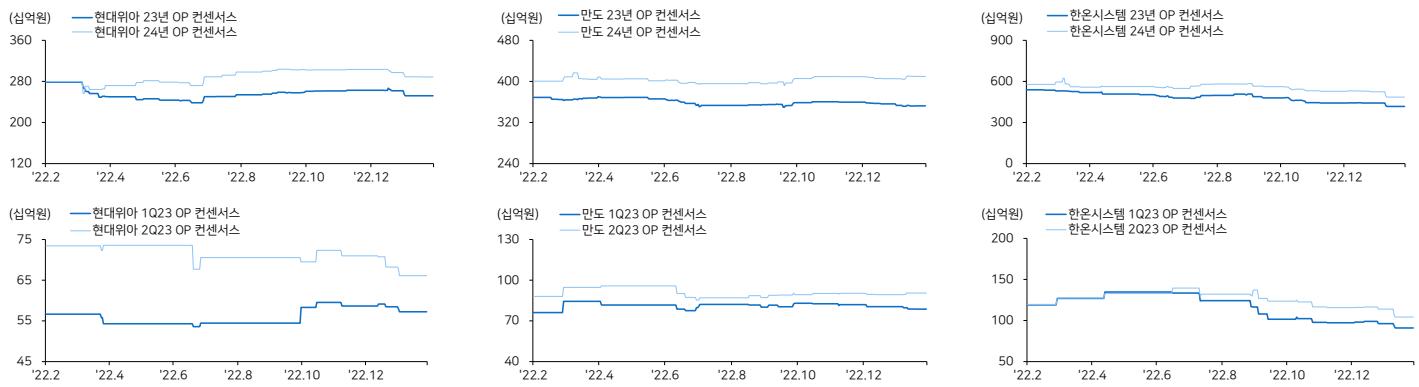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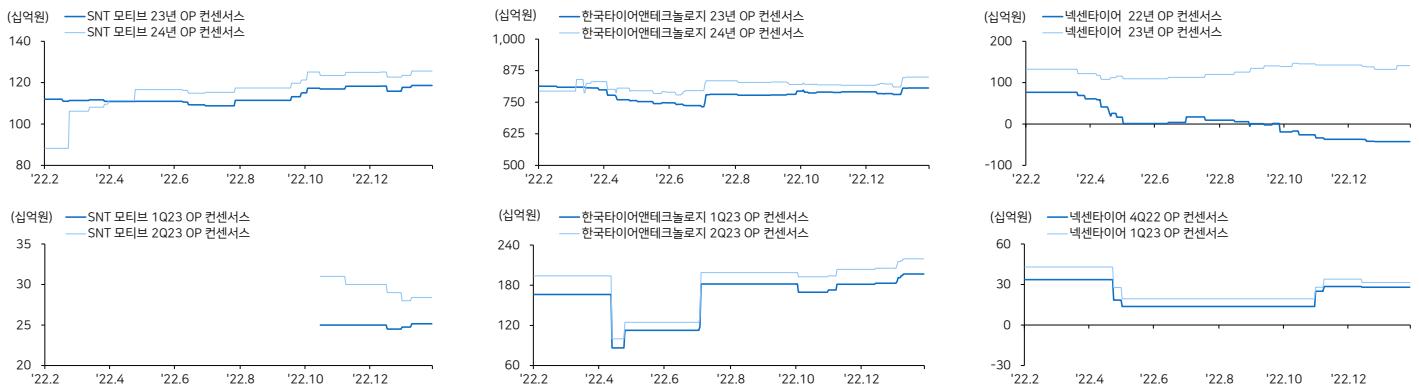
현대차 / 기아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N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중국, 올해말까지 전기차 구매세 감면 추진 (글로벌이코노미)

신才是真正 공업정보부 차관은 "중국 당국은 '전기차 구매세 감면' 정책 연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힘. 중국 경제 성장 지원을 위해 구매세 감면 정책을 2023년 말까지 연장할 것을 검토하는 것.

<https://bit.ly/41A3m0R>

포드, 배터리 화재로 멈춘 F-150 전기차 생산 13일부터 재개 (연합뉴스)

SK온 배터리를 탑재한 미국 포드자동차의 전기 플랫폼 F-150 라이트닝 생산이 오는 13일부터 재개될 예정. 이 플랫폼에 배터리를 공급하는 SK온의 미국 법인인 SK배터리미아리카(SKBA) 조지아주 공장은 앞서 지난달 20일부터 재가동.

<https://bit.ly/41DfG9>

Tesla lobbying to secure lithium from Chile (Mining.com)

테슬라 경영진이 지난달 칠레 외무부, 관공부, 국가개발청 당국자들과 만나 배터리 금속, 특히 리튬 공급 확보에 노력한 것으로 알려짐. 칠레 행정부는 국영회사를 설립, 부속한 기술부문을 위해 민간기업 파트너를 모색 중.

<https://bit.ly/3KPFgck>

Lithium Americas starts construction at Thacker Pass in Nevada (Reuters)

Lithium Americas는 지난 목요일 네바다주 Thacker Pass 리튬 프로젝트 건설을 시작. 지난 2월 환경 영향 우려가 있다는 주장에 기각하고 공사를 허가한 연방 법원 판결에 따른 것. 해당 광산은 북미 최대 리튬 공급원이 될 가능성이 있어 주목.

<https://reut.rs/41lfFbt>

기아, 국산 첫 '대형 SUV 전기차' EV9 티저 공개 (조선일보)

기아가 대형 전기 SUV '더 기아 EV9' 출시를 앞두고 티저 이미지를 2일 공개. EV9은 기아가 EV6에 이어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기반으로 만든 두 번째 전기차로, 국산차로는 첫 대형 전기 SUV라는 점에서 주목.

<https://bit.ly/3YghHSCY>

활 줄어든 신차 수요… 1년 넘게 기다리는 현대차·기아 車, 단 6종 (조선일보)

현대차, 기아, 제네시스의 신차 대기기간이 감소. 계약하고 1년 넘게 기다려야 하는 차가 작년 11월 24종에서 이달 6종으로 급감. 일부 인기 모델을 제외하면 연내 자동차 공급이 거의 정상화될 것으로 전망됨.

<https://bit.ly/3K1P1V8A>

Ford launches automated driving unit Latitude AI months after winding down Argo (Reuters)

포드는 지난 목요일 새로운 자율주행 사업부 자회사 Latitude AI를 출범. 기존 Argo AI에서 근무했던 550명 직원이 고용되었으며, 특정 구간에서 핸즈프리 고속도로 주행을 제공하는 기술 BlueCruise 기술을 확장할 것.

<https://reut.rs/3Yk8aEu>

VinFast delivers first 45 cars in US market (Reuters)

베트남 자동차 업체 VinFast은 지난 수요일 캘리포니아에 미국 최초 전기차 45대 판매 물량을 인도. 베트남 이외 지역에서 처음으로 자동차를 판매. VinFast은 현재 노스캐롤라이나에 40억달러 규모 공장 건설 승인 대기 중.

<https://reut.rs/41Dk0tL>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 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